



생활비, 어디부터 줄일까요?

2015. 11. 12 | 이정아_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tempjunga@gmail.com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는 ‘단골’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거이다. 가구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에 비해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아져서 3분의 2를 넘어서게 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중에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근본 원인은 어느 쪽일까? 소득 위축이 초래한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소비 성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사회조사」는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안전 등 10개 부문을 5개 부문씩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 흡수 해에 조사되는 「소득과 소비」 부문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귀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겠습니까?”

3순위까지 응답할 수 있는데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경조사비, 기타(주관식). 그럼 여기에서, 질문: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지는 뭘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지를 1순위로 선택했을까?”

표 1은 2011년과 2013년의 응답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결과는 (적어도 필자에게는) 의외이다.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줄이겠다고 응답한 항목으로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현재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흥청망청 쓰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흥청망청 쓰는 항목, 즉 마땅히 지출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 없기 때문일까?



표 1. 순위별 건축 항목(%)

	2013년			2011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식료품비	19.58	14.87	17.2	20.68	13.85	14.49
외식비	27.02	19.99	11.92	26.97	18.44	11.17
(식비)	(46.60)	(34.86)	(29.12)	(47.65)	(32.29)	(25.66)
의류비	9.46	17.23	16.77	8.01	15.56	14.29
교육비	4.9	2.91	4.43	5.95	3.73	4.91
교통·통신비	7.16	10.41	11.15	8.37	11.7	14.02
문화여가비	11.51	11.99	14.44	12.31	13.43	16.36
보건의료비	2.63	3.19	2.74	2.9	4.06	3.47
연료비	12.64	13.36	12.66	10.44	13.75	13.52
경조사비	4.64	5.97	8.64	3.73	5.37	7.67
기타	0.47	0.08	0.03	0.65	0.11	0.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원자료.

경제학에서 ‘소득탄력성’은 사치재와 필수재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이용된다. 어떤 상품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기도 좋아하는 K씨는 퇴근 후 밤마다 인터넷 홈쇼핑 물에서 카메라 렌즈를 찾아보지만 실제로 사지는 않는다. 갖고 싶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K씨는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다른 사람들의 1.5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식비를 줄여서 카메라 렌즈를 살 생각은 하지 않는다. K씨의 애인도 이 사실을 알지만 밥 먹을 때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며 이 정도의 식비 지출은 K씨에게 필수적인 것이므로 굳이 식비를 줄여 카메라 렌즈를 사지는 말라고 권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100%의 상여금을 받게 된 K씨는 밤마다 봐왔던 카메라 렌즈를 일시불로 구매했다. 카메라 렌즈를 사고도 상여금의 절반 이상 남았지만 식비 지출을 늘리지는 않았다. 2년 후 K씨가 다니는 회사 상황이 악화되어 시간급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적은 월급여를 받게 되었다. K씨는 가지고 있던 카메라 렌즈를 중고시장에서 팔았지만 식비를 줄이지는 않았다. K씨의 애인도 혹시 부족하면 자신이 더 낼 테니 계속 잘 먹으라고 K씨를 다독였다.

쉽게 알 수 있듯이, 위 예에서 K씨에게 카메라 렌즈는 사치재이지만 식비는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다. 사치재와 필수재 수요량의 변화는 단지 소득이 증가할 때에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할 때에도 구분된다. 표 1에 나타난 「사회조사」의 응답 결과가 의외로 여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가장 먼저 식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면,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사치스러운 식생활을 하고 있다



는 것이 아니면 이미 충분히 빠듯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합친 식비의 응답비중이 1순위에서만 근소하게 감소하였는데, 정확히 반대 패턴으로 늘거나 줄어든 항목이 연료비이다. 현재를 사는 한국인들이 식비나 연료비로 사치스럽게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미 다수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준'에 맞춰 빠듯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합리적일 듯하다.

표 2. 주관적 소득수준별 1순위 긴축 항목(%)

	2013년					2011년				
	매우 여유 있음 (0.83)	약간 여유 있음 (7.67)	적정함 (25.28)	약간 모자람 (43.24)	매우 모자람 (22.98)	매우 여유 있음 (2.77)	약간 여유 있음 (16.86)	적정함 (30.84)	약간 모자람 (34.00)	매우 모자람 (15.53)
식료품비	12.59	10.02	15.01	20.17	26.97	14.91	16.01	18.91	21.72	28.01
외식비	35.67	34.42	30.26	27.28	20.17	28.32	33.35	28.96	25.52	19.03
의류비	11.43	11.84	10.57	9.44	7.42	10.71	8.55	8.92	7.52	6.17
교육비	2.52	5.56	4.46	4.79	5.46	5.81	6.1	5.2	6.53	6.01
교통통신비	6.44	6.51	7.01	7.65	6.65	10.25	8.75	8.42	7.96	8.41
문화여가비	19.02	20.29	14.01	10.28	7.85	21.56	16.42	12.6	10.76	8.99
보건의료비	2.62	0.78	2.21	2.59	3.77	0.88	1.46	2.54	3.53	4.15
연료비	3.72	5.64	10.75	12.74	17.17	4.01	5.9	10.07	11.91	14
경조사비	5.14	4.52	5.15	4.71	3.96	3.44	3.2	3.81	3.89	3.85
기타	0.86	0.42	0.56	0.36	0.58	0.11	0.26	0.55	0.65	1.3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 2는 주관적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별로 2013년의 1순위 긴축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정도는 가구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에 비해 실제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약간 모자람 43.24%, 매우 모자람 22.98%). 여유 있다고 느끼는 비중은 9%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소득수준별로 의미 있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에 비해 소득이 여유 있을수록 외식비와 문화여가비의 응답 비중은 늘고 식료품비와 연료비의 응답 비중은 감소한다. 게다가 2011년과 비교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가구 생활의 '최소 금액'과 비교하여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 감소하기도 했지만, 여유 있다는 응답자 내에서도 문화여가비를 선택한 비중은 줄고 외식비를 선택한 비중은 늘었다. 일련의 응답 결과는 현대 한국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삶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야겠다. 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구 생활의 '최소 금액'이 너무 높았기 때문은 아닐까?



2011년에는 묻고 2013년에는 묻지 않은 질문이 있다. 바로 가구 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 금액이다. 가구원 수 1-6인까지 순서대로 평균 주관적 최소 금액은 119만 원, 179만 원, 253만 원, 308만 원, 328만 원, 324만 원이었다. 2011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으로 주40시간 전일제 노동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월 90만 원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결코 높은 수준을 기대해서 나온 응답은 아닌 듯하다.¹⁾

문화여가비를 가장 먼저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현재 여가활용은 만족스러운 상태일까? 절반 가까운 46%는 보통, 18%가 불만족, 35%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는데, 다른 항목을 먼저 긴축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인 48%, 26%, 26%와 비교해서 크게 높지 않다. 실제 이들의 주말 여가 활용 1순위는 TV 및 DVD 시청(31%)이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휴식(12%), 스포츠 활동(11%), 여행(11%)이 차지하고 있다. 문화여가비를 가장 먼저 줄이겠다는 응답은 현재의 여가 활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여행 경험 여부에서 10%p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항목의 긴축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이러한 문화여가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보다 연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많아진 까닭은 아마도 2011년에 질문했던 가구 재정의 긴축 상황이 현실이 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2011년에도 긴축 1순위는 식비, 그중에도 외식비(27%)였다. 그렇다면 이는 실현된 결과이자 진행 중인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2014년 국세청 국세통계²⁾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신규 창업한 사업자는 약 1,028천 명,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863천 명이였다. 전 업종 총사업자 수가 6,058천여 명, 음식점업 사업자 수는 652천여 명으로 부동산업(1,383천여 명)과 소매업(801천여 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음식점업은 총사업자 중 약 11%를 차지하지만 신규 사업자 중에서는 17%, 폐업자 중에서는 19%를 차지한다. 진입과 퇴출이 좋은 표현으로 활발하지만 진입한 사업자에게는 위험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자료에서 사업 존속 연수가 3년 미만인 비중, 즉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중이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53%인데 음식점업은 63%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음식점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단 6%도 되지 않는다(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은 12%). 폐업자의 폐업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약 41%인데 음식점업은 51%로 높다.

1) 또 한 편으로 최저임금은 한 사람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수준이기도 하다.

2) 국세청 국세통계 홈페이지(<http://stats.nts.go.kr/>) 참조.



표 3. 2012년 서울시 음식점업 자영업자 생존율(%)

창업 년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패스트 푸드	치킨	제과	평균
2011	78.1	75	84.2	77.3	72.9	77.6	78.2	86.8	78.8
2010	60.6	60.7	68.8	70.9	54.8	62.7	56.3	71.7	63.3
2009	50.2	52	54.6	49.7	42.5	53.6	52.8	59	51.8

출처: 서울신용보증재단, 「2014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14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³⁾ 자료를 가공한 표 3은 2009년 서울지역에 창업한 음식점업 사업자의 2012년 조사시점까지 생존율은 52%로 전국 대비 서울 지역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의 표와 비교해 보자.

표 4. 지역별 1순위 긴축 항목(%)

	식료품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교통· 통신비	문화 여가비	보건 의료비	연료비	경조사비	기타
서울	19.88	29.5	11.57	4.9	5	14.8	2.59	6.83	4.82	0.1
부산	27.5	24.23	7.49	4.22	7.35	10.04	3.45	12.56	3.07	0.1
대구	15.06	25.84	10.22	6.28	9.09	12	0.88	12.72	5.84	2.05
인천	21.86	26.71	7.13	5.11	8.31	10.38	2.35	13.87	3.89	0.38
광주	19.9	28.7	10.05	3.62	5.89	12.19	3.41	12.62	3.63	0
대전	21.32	32.59	8.61	4.82	6.75	11.32	1.76	9.54	3.1	0.2
울산	14.36	28.89	9.35	6.1	11.04	14.02	1.71	10.96	3.57	0
경기	19.51	30.39	9.74	5.27	5.51	12.53	1.58	10.56	4.34	0.58
강원	17.14	27.25	7.84	3.9	8.14	10.62	2.86	17.76	3.46	1.03
충북	17.49	23.37	10.04	4.56	8.82	8.94	2.36	18.31	5.5	0.61
충남	15.67	22.55	11.55	3.31	9.36	8.5	3.98	17.61	6.43	1.03
전북	21.11	20.24	9.14	4.07	9.72	9.72	2.39	19.03	4.27	0.3
전남	25.3	15.51	5.32	4.09	8.98	7.55	5.24	22.36	5.46	0.19
경북	18.35	23.33	8.15	4.88	8.56	7.92	3.64	20.06	4.67	0.45
경남	15	26.12	8.81	5.87	9.8	9.59	4	13.62	6.61	0.57
제주	16.78	30.78	9.4	6.03	5.68	11.2	3.43	11.77	4.75	0.1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3년 원자료.

표 4는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면 1순위로 긴축할 항목을 이번에는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주관적 소득수준이 여유 있을수록 1순위 긴축 항목으로 외식비와 문화여가비를 선택한 비중이 높으며, 문화여가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긴축 항목의 선택은 현재 소비

3)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참조.



를 하고 있으므로 긴축이 가능한 항목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그 항목이 사치재이거나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비 선택 비중은 서울 지역의 소비에서 외식비 지출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암시하며 비교적 높은 음식점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설명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는 ‘단골’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거이다. 가구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에 비해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아져서 3분의 2를 넘어서게 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중에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근본 원인은 어느 쪽일까? 소득 위축이 초래한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소비 성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든 재정이 악화된다면 어디부터 줄일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11월 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①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고용,노동	7/24	2015년 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김수현
지역,사회	7/27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강세진
고용,노동	8/3	서비스 · 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②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③	강세진
고용,노동	8/24	2015년 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김수현
경제	8/31	빈곤의 정의와 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최정은
복지	9/11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최정은
주거	9/22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강세진
고용,노동	9/24	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 : 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10/5	휴일무일	이정아
주거	10/19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3) 쇠퇴지역	강세진
고용,노동	10/27	2015년 9월 노동시장 분석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김수현
복지	10/30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③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	배지영
고용,노동	11/2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송민정
경제	11/12	생활비, 어디부터 줄일까요?	이정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